

울산문화예술회관과 함께하는

Arts Friend

with Ulsan Culture & Arts Center



12

2012 <http://www.ucac.or.kr>

울산시립합창단
제80회 정기연주회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Oratorio of G.F. Handel The Messiah



울산시립합창단
예술감독 겸 지휘자
구 천



소프라노
조정순



알토
최미란



테너
박상혁



베이스
임철민



반주
Bach Soliisten Seo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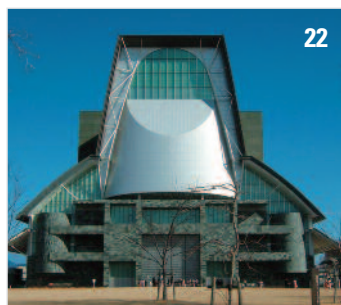
2012.12.18(화) 8:00 pm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전석_ 5,000원 회관회원 30% 단체(10인 이상)20% 인터넷예매_ www.ucac.or.kr, 275-9623~8

주최_ 울산광역시 주관_ 울산시립예술단



COVER STORY |

브로드웨이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스릴러, 전석 매진, 전회 기립 박수 등 최고의 찬사를 받고 있는 뮤지컬 '지킬앤하이드'가 오는 12월 29일과 30일 양일간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 그 화려한 막을 연다.

Arts Friend 2012.12

Contents

The Monthly Magazine of Ulsan Culture & Art Center

04 ■ 시립예술단 공연

[합창단] 제79회 정기연주회 '해설이 있는 오페라 「Cosi Fan Tutte」'

[합창단] 제80회 정기연주회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MESSIAH)」'

[교향악단] 문예회원을 위한 특별음악회 '푸치니 오페라 「라보엠」 갈라콘서트'

[교향악단] 2012 송년음악회

[무용단] 2012 송연공연 「해후(邂逅)」

[청소년교향악단 · 청소년합창단] 합동연주 '2012 송년의 밤'

12 ■ 기획전시

'대한민국 한국화 우수작가전'

14 ■ 기획공연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조윤범의 파워 클래식'

[스위트콘서트] '최정원의 뮤지컬 갈라콘서트'

[모닝콘서트] '산타는 열애중'

19 ■ 예술을 말하다

몽퇴르 재즈 페스티벌

시즈오카와 하마마스

이탈리아 오페라(2)

안 스텐의 〈성 니콜라스 축제〉

푸치니의 오페라 '라보엠'

35 ■ 12월의 공연 · 전시

공연 · 전시 가이드

12월의 공연 · 전시

울산광역시문화예술회관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12. 12월호 | 통권 제160호

●발행처 / 울산문화예술회관

울산광역시 남구 변영로 200(달동 413-13)

T. 052)226-8241 홈페이지 <http://www.ucac.or.kr>

●발행인 / 박상희 ●편집인 / 안종철

●기획 · 편집 / 김현욱, 박용운, 박영진, 권혁민, 김내영

●디자인 · 제작 / 동방디앤피 T. 052)266-8500

[울산시립합창단 제79회 정기연주회]

해설이 있는 오페라

Così Fan Tutte

코지 판 투테 (여자는 다 그래)

작품 소개

약혼녀의 정절을 두고 내기를 걸다!!

이야기의 배경은 18세기 후반, 이탈리아 나폴리

자매간인 피오르딜리지(Fiordiligi)와 도라벨라(Dorabella)는 젊은 장교 굴리엘모(Guglielmo), 페르란도(Ferrando)와 며칠 전에 약혼한 사이

이들은 카페에서 나이든 철학자 친구 돈 알폰소(Don Alfonso) 앞에서 자기 약혼녀의 미모와 정숙함을 자랑하느라 입에 침이 마른다. 외모만 예쁜 게 아니라 절대로 다른 남성들에게 눈 돌리는 일이 없다고 한다.

그러자 돈 알폰소는 '여자들의 신의란 믿을 게 못된다' 면서 내기를 제안하게 되고

24시간 안에 약혼녀들이 다른 남자에게 넘어가면 페란도와 굴리엘모가 알폰소에게 돈을 주고, 유혹에 끄떡없으면 반대로 알폰소가 두 사람에게 돈을 준다는...



예술감독 겸 지휘자 구 천



연출 박미애



해설 김종수

울 산 시 립 합 창 단

2012. 12. 1(토) ~ 2(일) 16:00, 2회 공연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지 휘 구 천(예술감독 겸 지휘자)

연 출 박미애(빛소리 오페라단 상임 연출)

해 설 김종수(배우)

출 연 울산시립합창단, 울산시립교향악단

입장료 일반 2만원, 청소년 1만원
(회원 30%, 단체 20% 할인)





코지 판 투테 《Cosi Fan Tutte》는 피가로의 결혼 《Le Nozze di Figaro》, 돈조반니 《Don Giovanni》와 함께 최고의 대본작가 로렌조 다 폰테(Lorenzo da Ponte)가 참여한 모차르트의 대표적 3대 오페라로 손꼽는다. ‘여자는 다 그렇게 한다’라는 뜻으로, 여자의 마음을 믿을 수 없다는 식으로 풍자한 것이다. 부제는 ‘연인들의 학교’이다.

남녀간의 신뢰와 사랑을 주제로 하여 애정의 일면을 재치있고 가볍게 묘사한 이 작품은 주제가 부도덕하다 하여 당시에는 비판을 받았으나 그 이후에 뛰어난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희가극을 위한 모차르트의 작품 중에서도 관현악 구성이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울산시립합창단에서 선보일 제79회 정기연주회 코지 판 투테 《Cosi Fan Tutte》는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빛소리 오페라단의 오페라 전문 연출과 스텝이 참여하고, 출연자들이 연주하는 곡의 노랫말과 감정 그리고 극의 상황에 맞는 해설을 곁들여 전체의 줄거리와 진행을 재치있게 이끌어줄 해설자가 등장하는 것이 특이한 점으로 눈여겨 볼만하다.

출연자는 오페라의 아리아를 중심으로 연주하고 해설자는 연주 전·후의 분위기와 상황을 전달하여 이태리 원어로 연주함에도 불구하고 극 전체의 진행을 이해하는데 모자람이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콘셉트로 연주한 국립합창단에서는 올 해의 음악회로 선정될 만큼 남녀노소 모두에게 많은 박수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울산시립합창단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실험적인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에게 높은 호응을 받을 것으로 자신하는 제79회 정기연주회 코지 판 투테 《Cosi Fan Tutte》에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글 | 김성민(울산시립합창단 단무장)

[울산시립합창단 제80회 정기연주회]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Oratorio of G.F. Handel The Messiah

작품 소개

‘음악의 어머니’로 불리는 게오르크 프리드리히 헨델(Georg Friedrich Händel, 1685 ~ 1759)은 독일에서 태어나 영국에서 활동한 바로크 시대의 작곡가이다. 메시아는 독실한 루터교 신자인 헨델의 대표적인 교회음악으로써 영문성서 중 하나인 킹 제임스 성경의 구절에 곡을 붙인 오라토리오이다. 구세주가 곧 올 것이라는 내용의 메시아는 영국 교회의 성가처럼 화음이 빛을 발한다. 음악은 2부의 끝 곡 ‘주를 찬미하라’는 뜻의 ‘할렐루야’에서 절정에 달한다. 엄청난 양의 음성 및 기악이 동원되는 이 부분은 오늘날까지 ‘어느 합창도 숭고함과 힘과 감동에서 이 ‘할렐루야’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평을 받고 있다. 제1부 ‘예언과 탄생’, 제2부 ‘고난과 속죄’, 제3부 ‘부활과 영생’으로 꾸며진 메시아는 1742년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에서의 초연이나, 이듬해 런던의 코벤트 가든의 왕실 가극장에서의 런던 초연 모두 자선음악회로 열렸다. 뿐만 아니라 헨델이 세상을 떠나기까지 손수 지휘한 32회의 연주 모두 자선음악회였다. 이토록 ‘구세주’라는 뜻을 가진 이 ‘메시아’는 우리 가운데 헐벗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갇힌 사람들 등을 생각하게 하는 귀한 정신이 배어있다.

울산시립합창단

2012. 12. 18(화) 20:00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지휘 구 천(예술감독 겸 지휘자)

협연 조정순(소프라노), 최미란(알토), 박상혁(테너), 임철민(베이스)

반주 Bach Sollisten Seoul

입장료 전석 5천원

(회원 30%, 단체 20% 할인)



2012년 마지막을 장식하는 울산시립합창단의 장엄하고 아름다운 메시지!

2012년 마지막 정기연주회는 인도와 봉사의 정신 그리고 자선을 목적으로 성탄절을 전후하여 가장 많이 연주되는 고전 레퍼토리아자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대작인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MESSIAH)'이다.

《메시아》는 헨델이 56세 때 불과 24일 만에 초고를 완성한 곡이지만, 헨델의 대표작이자 동서고금을 통틀어 종교음악의 백미로 꼽힌다. 제1부 <예언과 탄생>, 제2부 <고난과 속죄>, 제3부 <부활과 영생>의 3부로 구성되며, 테너의 독창 <그대 들 나의 백성을 위하여>로 시작하여 아리아와 합창곡 등 53곡이 연주된다. 알기 쉬운 웅장한 표현 속에 생생한 종교적 감동이 잘 나타나 있다. 1742년 4월 13일 아일랜드의 더블린에서 열린 자선행사에서 초연된 이래 지금도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세계 각처의 자선연주회에서 이 곡을 연주하는 것이 관습처럼 되어 있다.

2012 송년음악회를 겸한 울산시립합창단의 정기연주회를 통해 한 해 동안 시민들이 보내주신 사랑에 보답하고, 나아가 연말연시 따뜻한 마음을 모두와 나누고자 기획한 이번 공연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글 | 김성민(울산시립합창단 단무장)



소프라노 조정순



알토 최미란



테너 박상혁



베이스 임철민



반주 Bach Solisten Seoul

program

<제1부 - 예언과 탄생>

- 서곡(sinfonia) : Grave-Allegro moderato
- Accompanato(테너) : Comfort ye my people(내 백성을 위로하라)
- 아리아(테너) : Ev'ry valley shall be exalted (모든 골짜기가 높아지리라)
- 합창 : And the glory of the Lord shall be revealed(주의 영광)
- Accompanato(베이스) : Thus saith the Lord of Hosts(만군의 주가 말씀하신다)
- 아리아(베이스) : But who may abide the day of his coming(주 오시는 날 누가 당해내랴)
- 합창 : And he shall purify(깨끗하게 하시리라)
- 레치타티보(알토) : Behold, a virgin shall conceive(보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 아리아(알토) 및 합창 : O thou that tellest good tidings(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여)
- Accompanato(베이스) : For behold, darkness shall cover(보라 어둠이 땅을 덮으며)
- 아리아(베이스) : The people that walked in darkness (어둠에 행하던 백성이)
- 합창 : For unto us a Child is born (우리를 위해 나셨네/우리를 위해 한 아기 나셨다)
- Pifa(Pastoral Symphony) 시실리아 목가
- 레치타티보(소프라노) : There were shepherds abiding in the fields (어느날 밤 양치는 목자들이)
- 레치타티보(소프라노) : And the angel said unto them
- Accompanato : And suddenly there was with the angel
- 합창 : Glory to god in the highest(주께 영광)
- 아리아(소프라노) : Rejoice greatly, O daughter of Zion(오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하라)
- 레치타티보(알토) : Then shall the eyes of the blind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아지며)
- 이중창(알토, 소프라노) : He shall feed his flock (주는 목자요)
- 합창 : His yoke is easy, his burthen is light(그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벼워)

<제2부 - 고난과 속죄>

- 합창 : Behold the Lamb of God(보라 주의 어린양)
- 아리아(알토) : He was despised(주는 모욕 받으셨네)
- 합창 : Surely, he hath borne our griefs(진실로 주는 우리의 슬픔 맡으셨네)
- 합창 : And with his stripes we are healed(채찍 맞아 고치시네)
- 합창 : All we like sheep have gone astray(우리는 양떼 같이 헤매었네)

- Accompanato(테너) : All they that see him(주를 보고 비웃었네)
- 합창 : He trusted in God(그는 하나님을 믿으니)
- Accompanato(테너) : Thy rebuke hath broken his heart(저를 비웃음에 주님 마음 상하셨네)
- Arioso(테너) : Behold, and see if there be any sorrow(보라 주님의 이 서러움)
- Accompanato(테너) : He was cut off of the land(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지셨네)
- 아리아(테너) : but thou didst not leave his soul(하나님이 주의 영을 지옥에서 구하셨네)
- 합창 : Lift up your heads, O ye gates(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라)
- 레치타티보(테너) : Unto which of the angels(하나님이 어느 천사에게 말씀하셨나?)
- 합창 : Let all the angels of God worship him(저 모든 천사 주께 경배하라)
- 아리아(알토) : Thou art gone up on high(주님께서 높이 오르셨네)
- 합창 : The Lord gave the word(주님 말씀하셨네)
- 아리아(소프라노) : How beautiful are the feet(오 아름다운 그 발이여)
- Arioso(테너) : Their sound is gone out into all lands(저들의 소리 온 누리에 퍼져나갔네)
- 아리아(베이스) : Why do the nations so furiously rage(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 합창 : Let us break their bonds asunder(우리는 그 결박을 끊어 버리자)
- 레치타티보(테너) : He that dwelleth in heaven(하늘에서 주님이 비웃으시리라)
- 아리아(테너) : Thou shalt break them(주님께서 철장으로)
- 합창 : Hallelujah(할렐루야)

<제3부 - 부활과 영생>

- 아리아(소프라노) : I know that my Redeemer liveth(내 주는 살아계시니)
- 합창 : Since by man came death(사람으로 인하여 죽음 왔으니)
- Accompanato(베이스) : Behold, I tell you a mystery(보라 이 심오한 진리를 들으라)
- 아리아(베이스) : The trumpet shall sound(나팔이 울리리라)
- 레치타티보(알토) : Then shall be brought to pass(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 이중창(알토, 테너) : O death, where is thy sting?(오 죽음아 네 독침은 어디에 있느냐?)
- 합창 : But thanks to God(하나님께 감사드리자)
- 아리아(소프라노, 알토) : If God be for us(주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시니 누가 대적하리요)
- 합창 : Worthy is the Lamb that was slain(죽임 당하신 어린양)

[문예회원을 위한 특별음악회]

푸치니 오페라 라보엠 갈라콘서트

울산문화예술회관 문예회원을 위한 특별음악회

가난한 예술가들의 사랑을 그린

푸치니의 오페라 '라보엠' 하이라이트

오는 12월 7일(금) 저녁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지는 푸치니의 오페라 '라보엠' 갈라콘서트는 울산시립교향악단의 문예회원을 위한 특별음악회로 기획되었으며, 일반관객은 전석 1만원, 유료회원 중 일반회원은 2매, 가족회원은 4매, 청소년회원과 단체회원은 1매 무료로 감상할 수 있는 공연이다.

'라보엠'은 푸치니의 3대 오페라 중 하나로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사랑받는 오페라이다. 1830년경 파리의 초라한 한 아파트의 다락방, 크리스마스 이브를 배경으로 펼쳐진다. 이곳에는 시인인 로돌포, 화가인 마르첼로, 철학자 콜리네, 그리고 음악가인 쇼나르 이렇게 3명의 예술가와 한명의 철학자가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중 시인 로돌포는 같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곱고 아름다운 아가씨 미미와 사랑에 빠지게 된다. 하지만 미미는 폐병에 걸린 병든 처녀이고 그들은 너무 가난한 연인이었기에 병든 미미를 부양할 힘이 없는 로돌포와 미미는 점점 지쳐간다. 그러던 어느날 자신의 병을 알게된 미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서로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로돌포에게 이별을 고하고 둘은 헤어진다. 사랑하면서도 헤어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연인들 ... 그렇지만 마지막 미미가 숨을 거둘 때에는 사랑하는 로돌포가 지켜보는 앞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관련자료 30p)

글 | 최연수(울산시립교향악단 단무장)



연출 김성경



소프라노 신승아
미미 [가난한 처녀, 로돌포의 연인]



테너 전병호
로돌포 [시인]



바리톤 오승용
마르첼로 [화가]



소프라노 마혜선
무젯타 [미미의 친구, 마르첼로의 연인]



바리톤 강경원
쇼나르 [음악가]



베이스 김정대
콜리네 [철학자]

12.07

2012 송년음악회

울 산 시 립 교 향 악 단
2012. 12. 21(금) 20:00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지 휘 김홍재(예술감독 겸 지휘자)
협 연 소프라노 김상은, 테너 정의근
입 장 료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회원 30%, 단체 20% 할인)

울산시립교향악단의 특별기획 '2012 송년음악회'가 12월 21일(금)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진다. 올 해 울산시립교향악단의 마지막 공연으로 울산시민들에게 최고의 음악을 선사할 것이다.

강강춤으로 유명한 오펜바흐의 오페레타 '지옥의 오르페우스' 서곡과 차이콥스키 최고의 발레음악 백조의 호수 모음곡이 1부를 장식한다. 2부 순서로는 베르디 오페라 '가면무도회' 중 아멜리아(Sop. 김상은)와 리카르도(Ten. 정의근)의 주요 아리아와 이중창이 아름다운 12월 송년의 밤을 수놓을 것이다.

가면무도회는 18세기 스웨덴을 통치했던 군주 구스타프 3세 암살 사건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 베르디의 오페라 중에서 가장 정열적이고 풍부한 표현력을 가진 오페라이다. 정치적 암투, 사랑과 배신, 분노의 극적 전개를 그린 오페라가 '가면무도회'이다. 마지막 대미를 장식할 곡은 라벨의 볼레로로 이 음악은 라벨의 마지막 발레곡으로 러시아 출신의 명발레리나 이다 루빈슈타인의 의뢰로 작곡되어졌다. 루빈슈타인은 그에게 스페인 작곡가인 이삭 알베니스의 '이베리아 모음곡' 중 6곡을 오케스트라로 편곡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라벨은 볼레로라는 스페인 춤곡을 바탕으로 완전히 새로운 작품을 만들었고, 라벨은 오케스트라들이 자신의 곡을 연주하길 피할까봐 두려워했지만 1928년 파리 가르니에 극장에서 이뤄진 초연에서 많은 갈채를 받았다고 한다. 올해 마지막을 장식할 울산시립교향악단의 특별기획 2012송년음악회를 통해 의미 있는 송년을 보내시기를 바란다.

글 | 최연수(울산시립교향악단 단무장)



소프라노 김상은



테너 정의근



지휘 김홍재

[2012 송년공연]

해후邂逅

한국 전통춤의 계승과 창조적 발전을 목표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울산시립무용단은 오는 12월 20일(목)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한 해 동안 시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던 시립무용단의 다양하고 재미있는 공연을 다시 선보인다.

울산의 대표 무용예술인과 함께 하는 이번 공연은 화합과 우정, 소통과 교감을 나누는 풍성하고 신명난 무대로 관객들과 함께 2012년을 마무리하는 아주 뜻 깊은 자리 가 될 것이다.

글 | 신박범(울산시립무용단 단무장)

program

- 크리스마스 캐럴 연곡 | 울산시립무용단(반주)
- 전화행무(달빛 아래에서 그림자 II) | 김외섭
- 입춤 | 울산무용협회
- 엄마야 누나야 | 노연정(울산시립무용단)
- 오고무 | 울산시립무용단
- 울산한량무 | 사)한국문화예술평의회
- 월향 | 정인숙
- 울산학춤 | 울산학춤보존회
- 살풀이춤 | 김미자
- 비상(복의 향연) | 울산시립무용단

울 산 시 립 무 용 단

2012. 12. 20(목) 20:00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안 무 김상덕(예술감독 겸 안무자)

특별출연 김외섭, 김미자, 정인숙,
울산무용협회, 사)한국문화
예술평의회, 울산학춤보존회

입 장 료 전석 5천원

(회원 30%, 단체 20% 할인)



12.20



울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 청소년합창단 합동연주

2012 송년의 밤

울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 합창단
2012. 12. 28(금) 19:30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지휘 김종규(시립청소년교향악단 지휘자)
한성용(시립청소년합창단 지휘자)
입장료 전석 1천원

12.28

program

청소년합창단

- 1부
 - 속삭이는 눈(Whispering Snow) | 조센
 - 문리버(Moon River) | 머서
 - 노래의 날개위에 | 멘델스존
- 2부
 - 기차와 소나무 | 이규식 곡, 박창호 편곡
 - 제주도의 푸른밤 | 최성원 곡, 박창호 편곡
 - 오! 해피데이 | R.Hawkins 곡, 김규현 편곡

〈휴식10분〉

청소년교향악단

- 호두까기 인형 서곡 | 차이코프스키
-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 g단조 Op.26(Vn. 김지연)
- 자클린의 눈물 (VC. 이서은)
- 캐리비안해적 | 바델트

청소년교향악단, 합창단 합동연주

- 눈꽃송이 모음곡 | 서덕출 시 김기영 편곡
(서덕출 시인의 5편의 동요에 의한 합동 모음곡)

울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과 시립청소년합창단이 합동으로 2012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2012 송년의 밤” 연주회를 개최하여 청소년들의 정서에 부합되고 더불어 청소년들과 음악으로써 교감하고 나누고자 한다.

이번 연주회는 전반부를 시립청소년합창단이 장식하고, 후반부에 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 함께하며 마지막은 두 단체가 합동으로 마련하였다. 울산 출신의 시인이자 아동문학가인 서덕출 선생님의 유명 작품이기도 한 “눈꽃송이”를 5편 중 일부 발췌하여 엮어 만든 “눈꽃송이 모음곡”으로 합창과 오케스트라가 함께 한다. “송이송이 눈꽃송이 하얀 꽃송이 ~♪”는 부모님 세대에서부터 지금 세대에 이르기까지 겨울과 송년에 가장 많이 불리는 동요라 해도 과언이 아니듯 이번 시립청소년단이 선사하는 송년 음악을 함께 교감하면서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은 물론 즐겁고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란다.

글 | 김수형(울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 합창단 단무장)



울산시립청소년합창단



김종규



한성용

울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대한민국 한국화 우수작가전

‘12. 12. 28(금) ~ ‘13. 1. 11(금), 15일간 / 제 1, 2, 3, 4전시장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는 2012년을 마무리하고 2013년 새해를 맞이하는 기획전시로 오는 12월 28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15일간 「대한민국 한국화 우수작가전」을 개최한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제주를 비롯한 전국 15개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한국화 우수작들의 다양한 한국화 작품 176점을 전시장 전관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번 전시에 초대한 작가들은 우리나라 한국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전국의 작가들로, 각 지역별로 서울 42명, 부산 9명, 대구 12명, 광주 9명, 대전 17명, 경기·인천 15명, 강원 4명, 경남·경북 20명, 전남·전북 13명, 충남·충북 4명, 제주 2명과 울산미술협회 한국화분과 회원 29명 등 총 176명의 작품이 전시된다.

특별히 울산에서 기획한 한국화 전시로는 최대 규모로 각 지역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한자리에서 비교하며 감상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한국화에는 우리 조상들의 절의와 서정, 낭만과 운치, 유연함과 여유로움이 깃들여 있다. 그렇지만 오늘날 한국 현대미술은 새롭고 실험적이고 파격을 추구하는데 치우쳐 이러한 전통의 소중함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묵묵히 우리 고유의 아름다움을 이어나가면서 현대적 해석을 통해 다양한 조형성을 추구하는 작가들의 노력은 실로 값지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전시에는 한국화의 정신은 이어 나가되, 현대적인 표현기법을 사용한 참신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한국화는 네모반듯한 종이에 먹으로 담담하게 그리는 그림이다.'라는 고정관념을 뛰어 넘어 화려한 색채를 사용하고, 원형으로 제작하기도 하며, 종이 덧붙이거나 다양한 오브제를 사용하여 만들어 입체적인 느낌을 내는 작품도 있고, 유화 물감 등 서양화 재료를 이용하기도 하는 등 한국화의 새로운 변신과 발전 가능성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한해를 정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에 마련되는 「대한민국 한국화 우수 작가전」이 작가들에게는 상호 화합과 교류의 장으로, 시민들에게는 우리 고유의 아름다움을 되새겨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며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내기 위한 작가들의 도전정신과 끊임없는 창작력이 학생들에게 전달되어 창의력을 일깨우고 내일의 희망을 꿈꿀 수 있기를 바란다.

글 | 박영진(울산문화예술회관 공연과 주무관)

①						⑫
②						⑬
③	⑤	⑥	⑦	⑧		⑭
④	⑨		⑩	⑪		⑮

- | | |
|--------------------------|------------------|
| 01. 윤여환 <사유, 광야를 품다> | 09. 하철경 <어촌> |
| 02. 정종해 <시선> | 10. 이종성 <평사리> |
| 03. 최태문 <아침> | 11. 오용길 <봄의 기운> |
| 04. 김문식 <청류> | 12. 이재호 <연꽃> |
| 05. 강종래 <설화> | 13. 이경모 <세월의 미학> |
| 06. 오건규 <추성전화> | 14. 정하경 <북한산 계곡> |
| 07. 차대영 <chamos-petunia> | 15. 강현식 <호숫가 풍경> |
| 08. 윤복희 <가을> | |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울산공연

일 시 | 2012. 12. 29(토) 15:00, 19:30 / 30(일) 14:00, 18:30
 장 소 |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주 최 | 울산문화예술회관, 좋은날 음악기획
 제 작 | 오디뮤지컬컴퍼니
 입장료 | VIP석 11만원, R석 9만원, S석 7만원, A석 5만원
 (회원 20%, 30인 이상 단체 20% 할인)

시놉시스

인간 내면에 자리 잡은 두 개의 본성 Good & Evil
 아름다운 선율에 담긴 위태로운 사랑과 위험한 게임!

1885년 런던, 헨리 지킬은 유능한 의사이자 과학자이다.

그는 정신병을 앓고 있는 아버지 때문에 인간의 정신을 분리하여 정신병 환자를 치료하는 연구를 시작한다. 인간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에 들어가기 하는 단계에 이르렀지만 이사회에의 전원 반대로 무산된다.

지킬의 변호사인 어터슨은 그를 위로하며 웨스트엔드의 한 클럽으로 데리고 간다. 클럽에서 일하는 루시가 학대 당하는 모습을 보고 지킬은 친구가 필요하면 연락하라며 자신의 명함을 준다. 임상실험대상을 구하지 못한 지킬은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실험하기를 결정한다.

정신이 선과 악으로 분열되면서 악으로만 가득 찬 제 2의 인물 하이드가 내면을 차지하게 된다. 실험이 진행될수록 지킬은 악혼자인 엠마와 점점 멀어진다.

어느 날 상처 입은 루시가 실험실로 찾아오고, 그녀를 그렇게 만든 사람이 '하이드'라는 것을 안 지킬은 불안함에 휩싸인다. 루시는 지킬의 친절한 치료에 감동하고 사랑에 빠진다. 실험이 계속해서 진행되자, 하이드는 이사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반대했던 임원들을 하나하나 살해하기 시작하는데 ...



지킬/하이드 양준모 지킬/하이드 윤영석 엠마 정명은 엠마 이지혜 루시 신의정

날짜	요일	시간	지킬/하이드	엠마	루시
12월 29일	토	15:00	양준모	정명은	신의정
		19:30	윤영석	이지혜	신의정
12월 29일	일	14:00	양준모	정명은	신의정
		18:30	윤영석	정명은	신의정

왜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인가?

WARDS ★★★★★

- 2007 제1회 더뮤지컬어워즈 최우수재공연상 수상
- 2004 제10회 한국뮤지컬대상 남우주연상(조승우) 수상
- 2004 제10회 한국뮤지컬대상 여우신인상(소나) 수상
- 1997 Drama Desk Award 4개 부문 노미네이션, 2개 부문 수상
Outstanding Actor · Outstanding Set Design
- 1997 Theatre World Award 수상 Linda Eder
- 1997 Tony Award 4개 부문 노미네이션
Best Book · Best Actor · Best Costume Design · Best Lighting Design

REVIEW ★★★★★

- 조선일보 완벽에 가까운 연기, 아름다운 노래. 단연 돋보이는 무대 흡인력을 가진 뮤지컬
- 중앙일보 지킬의 고요함과 하이드의 폭풍같은 이성적인 연기
- 동아일보 온몸의 에너지를 쏟아붓는 열창으로 가슴 뻥 뚫리는 폭발적인 무대
- 국민일보 일본열도 기립박수, 파워 있는 연기에 환호성
- 한겨레21 30여곡의 뮤지컬 넘버는 '지킬'이 흥행몰이를 하는 이유를 감동적으로 들려준다
- 노컷뉴스 '브로드웨이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스릴러'라는 찬사를 들을 정도로 아름다운 음악과 매혹적인 스토리가 절묘하게 조화

대한민국 1%의 선택!!

당신은 아직 최고를 경험하지 못했다

오직 한정된 기간에만 만나볼 수 있는 2012 KOREAN NATIONAL TOUR !!!

2004년 초연 이래, 한국 뮤지컬계의 전무후무한 기록을 자체 경신하고 있는 국내 최고의 뮤지컬 관객들이 가장 손꼽아 기다려온 바로 그 작품, 뮤지컬 <지킬앤하이드>가 울산을 찾아온다.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매력적인 스토리와 This is the moment, Once upon a dream 등 수려한 뮤지컬 넘버들의 향연! 빅토리아 시대를 완벽히 재현한 화려한 무대와 고풍스런 의상! 2012년 12월 울산, 뉴 캐스트로 새롭게 선보일 <지킬앤하이드> 그 감동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세계적으로 이미 인정받은 명작

'지킬박사와 하이드씨의 이상한 사건(STRANGE CASE of Dr. Jekyll and Mr. Hyde)'은 1886년 스코틀랜드 소설가 R.L. 스티븐슨에 의해 발표된 소설로, 인간의 이중성에 대한 묘사가 뛰어난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소설은 주인공 지킬 박사의 오랜 친구이자 변호사인 어터슨의 시각으로 기술되고 있다. 소설은 출간되자마자 대단한 성공을 거두어 출간된 지 1년도 안되어 보스턴과 런던에서는 무대에 올려지기도 하였다.

흔히 '지킬앤하이드(Jekyll and Hyde)'로 알려진 이 작품은 126년이 지난 지금에도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드라마, 연극, 영화로도 제작되어 작품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인정받은 몇 안 되는 '명작'으로 불릴 가치가 있는 작품이다.



브로드웨이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스릴러!

1997년 3월 브로드웨이에서 첫 선을 보인 뮤지컬 지킬앤하이드는 2001년 7월 까지 프리뷰 44회를 포함해 1,587회의 공연을 무대에 올렸고, 브로드웨이 공연 이후 독일, 스페인, 헝가리, 오스트리아, 한국, 일본 등에서 무대화되어 전 세계 인들을 매료시켰다. 특히 'Once Upon a Dream'이라는 곡은 여러 영화와 CF 등에 삽입되어 지킬앤하이드의 인기를 증명하였고, 'This is the Moment', 'A New Life' 등도 많은 사랑을 받으며 공연내용과 더불어 뮤지컬 음악 역시 세계 각국의 언어로 불려지고 있다.

최고의 배우들이 꿈꾸는 단 하나의 공연!

2004년 코엑스 오디토리움 초연 이후, 뮤지컬 지킬앤하이드는 한국의 대표 뮤지컬로 자리매김하였다. 1일 티켓 판매량 신기록 수립(1만2천장), 전회 기립박수와 전례 없는 언론의 호평, 평균 유료 좌석점유율 75% 등의 기록은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은 한국 뮤지컬 최고기록이다.

특히 뮤지컬 지킬앤하이드를 통해 최고의 배우로 우뚝 선 조승우 공연의 경우 평균 좌석 점유율 99%, 유료좌석 점유율 95%라는 세계 공연사(史)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경이로운 기록을 남겼으며, 류정환, 김소현, 조승우, 김선영, 소냐, 민영기, 서범석, 홍광호 등 최고의 배우들만이 설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뮤지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글 | 박용운(울산문화예술회관 공연과 주무관)



과르티엑스와 함께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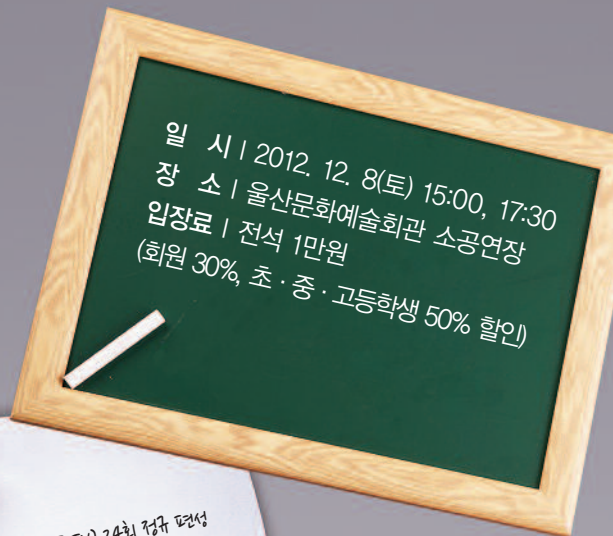
조윤범의 파워클래식



피아노 윤선빈



테너 하만텍



♪ 케이블TV 예술인문화채널 공동아트TV(전 메타아트TV) 24회 정규 편성
♪ 2007년 11월부터 2년간 매주 5회씩 방송 중
♪ 문화예술포럼 최초로 2008 한국케이블TV대상 원상 수상
♪ KBS TV <TV특강>, <낭독의 발견>, <클래식 오디세이>, <한겨레특설>
♪ MBC TV <TV특강 인생은 아름다워>, <이재명, 정세균의 기발함을 날>, EBS <TV정성대하> 등 출연

“개콘(개그콘서트)보다 재미있다!”
“이런 강의를 16년 하고 다니는 동안 한 번이라도 들었더라면 클래식 음악에 대한 생각이 전적으로 달라졌을 것이다.”
“대학교부터 회사를 다니면서까지 수백 번의 강의를 보았지만 이들의 표현력이야말로 호소력을 가진 것은 몇 번이었는지 생각해보라.”
- 관객 요청 중에서
“진정한 클래식 음악에 새로운 색을 입혀 청중이 쉽게 이해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교유적 용어는 물론, 역사 속에 숨겨진 작품들을 선곡하여 청중의 시각, 청각 등 다양한 감각을 자극하여 그들의 세계로 흡입했다.”
- 이영우, 음악평론가/열한 스튜디오 대표

2007년 초연 이후 4년 동안 전국의 공연장, 기업, 대학, 정부기관 등에서 총 800여 회 이상 공연되며 한국 클래식 음악계의 가장 성공적인 콘텐츠로 자리매김한 <과르티엑스와 함께하는 조윤범의 파워클래식>. 그 중에서도 <한 시간에 듣는 서양음악사>는 모두 50회가 넘는 작곡가 시리즈의 하이라이트 공연으로 클래식 음악 팬들은 물론 평소 클래식 음악을 접해볼 기회가 드물었던 일반 대중들에게도 클래식 음악을 쉽고 재미있게 소개하여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2012년 과르티엑스가 <한 시간에 듣는 서양음악사 2>를 새롭게 선보인다. <한 시간에 듣는 서양음악사 시즌1>은 바로크 시대의 비발디, 바흐, 헨델과 같은 거장들부터 고전파시대의 하이든과 모차르트, 그리고 베토벤을 지나 슈베르트, 멘델스존, 러시아의 벌리나 불렀던 차이코프스키까지 다루었다. <한 시간에 듣는 서양음악사 시즌2>는 낭만파 시대의 대표적 작곡가들인 쇼팽을 비롯하여 브람스, 생상스, 엘가, 드보르작에 이르기까지 <서양음악사 시즌1>의 뒤를 이어받는 위대한 작곡가들의 삶과 음악들을 소개한다. 한 시간 동안 유쾌하게 쏟아내는 조윤범의 프리젠테이션과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생상스의 '죽음의 무도', 엘가의 '사랑의 인사' 그리고 드보르작의 현악4중주 12번 '아메리칸'에 이르기까지 여러 작곡가들의 수많은 명곡들이 관객들을 사로잡을 것이다.

글 | 박용운(울산문화예술회관 공연과 주무관)



과르티엑스



최정원의 뮤지컬 갈라콘서트

일 시 | 2012. 12. 6(목) 20:00

장 소 |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출 연 | 최정원, 윤영석, 뮤즈(뮤지컬 갈라팀)

입장료 | 전석 1만원 (회원 30%, 단체 20% 할인)

최정원 ▶

2009년부터 시작된 스위트콘서트는 울산문화예술회관 자체제작 공연으로 이번 2012년에 시즌5를 맞이하게 되었다. 3년간 진행되었던 스위트콘서트를 통해 이미 쟁쟁한 스타급 뮤지컬 배우들이 다녀갔다. 뮤지컬배우 백재현, 강효성, 김선영, 홍지민, 김호영에 이어 2012년에는 엘레강스한 분위기의 최정원과의 만남을 이어간다.

유명 뮤지컬 배우를 공연캐릭터가 아닌 실제로 만난다!!!

공연 안에서 극중 캐릭터로만 만날 수 있는 뮤지컬배우, 하지만 스위트콘서트에서는 마치 옆집 오빠나 친구를 만나는 듯한 느낌으로 배우와 만나볼 수 있다. 스위트콘서트는 제목 그대로 관객에게 편안하고 달콤한 추억을 안겨다 줄 수 있는 공연이다.

유명 뮤지컬 배우를 주옥같은 뮤지컬 넘버들!!!

"영화음악은 옛 여인의 향수이다"라고 말했던 세계적인 영화광 장 뢰고다르 ...

스위트콘서트에서 유명 뮤지컬 배우가 뮤지컬 속의 주옥같은 뮤지컬 넘버들을 들려준다면 그 뮤지컬을 봤을 때의 감흥을 또다시 느끼게 될 것이다. 여러 가지 공연의 추억을 스위트콘서트로 정리하자.

배우들의 진솔한 이야기들!(최충우돌 실수담, 배우가 되기까지 ...)

배우들이 들려주는 무대 뒷이야기들을 통해서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문다. 수동적인 관람공연이 아닌 무대와 객석이 동화되는 자연스러운 만남!!

글 | 박웅운(울산문화예술회관 공연과 주무관)



▲ 윤영석



▲ 뮤즈

산타는 열애중

일 시 | 2012. 12. 27(목) 11:00

장 소 |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5천원 (회원 30%, 단체 20% 할인)

올해도 조금 있으면 어김없이 크리스마스가 찾아온다. 밤거리를 반짝반짝 수놓는 트리들과 잔잔히 울려 퍼지는 캐럴을 듣다보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설레는 마음으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게 마련이다. 이렇게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공연장을 찾는 발길이 최근 부쩍 늘었다. 올해는 어떤 공연들이 우리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할까.

오는 12월 27일 오전 11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울산문화예술회관 2012년 마지막 모닝콘서트로 온 가족이 즐겁게 볼 수 있는 가족음악극 〈산타는 열애중〉 공연이 무대에 올려진다.

이 공연은 정상급 성악가들의 노래와 재미있는 연기로 온 가족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다 같이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는 음악극 형태의 공연이다. 금슬 좋은 부부인 경중과 혜옥, 그리고 심성 착한 딸 성화는 말 그대로 화목하고 단란한 가족이다. 어느 겨울 성화는 영수와 사랑에 빠지게 되고 두 사람은 성화의 부모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면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펼쳐진다.

앤드루 로이드 웨버가 만든 '오페라의 유령'의 뮤지컬 넘버 'All I ask of you'를 비롯해 오페라 '라보엠'의 '제 이름은 미미예요', 캐럴 '오 거룩한 밤' 등 뮤지컬, 오페라, 팝, 성가 같은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문화예술회관은 지난 해 연간 6회 공연했던 모닝콘서트를 올해는 4회를 늘려 총 10회로 확대 운영하는 동시에 매회 특정 주제를 정하여 공연함으로써 감상의 재미를 더 한다는 계획 아래 모닝콘서트를 진행해 왔다. 이렇게 다양한 주제로 관객들의 보는 재미를 더하여 모닝콘서트가 올 한해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글 | 박용운(울산문화예술회관 공연과 주무관)



Arts Friend

Part.1 예술을 말하다

몽퇴르 재즈 페스티벌

시즈오카와 하마마스

이탈리아 오페라(2) - 도니제티와 벨리니

안 스텐의 〈성 니콜라스 축제〉

푸치니의 오페라 '라보엠'

Part.2 12월의 공연·전시

공연·전시 가이드

12월의 공연·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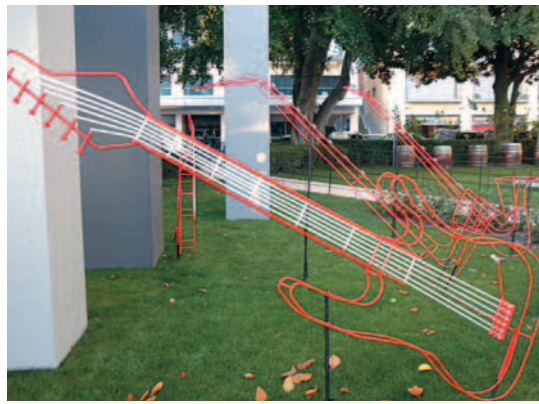


레만호의 낭만을 아시나?

여름밤 호숫가를 적시는 재즈선율

몽트로 재즈페스티벌

세계의 유명한 관광지는 대부분 '물'을 끼고 있습니다. 작은 호수든, 도시를 관통하는 강이든, 넓디넓은 바다든. 1초도 멈추지 않고 흐르는 물에 어떤 마력이 있기에 사람들은 자꾸만 물가로 찾아드는 걸까요. 저명한 예술가들 역시 '물'을 사랑했습니다. 덕분에 스위스의 이 작은 마을 몽트뢰(Montreux)에서도 내로라할 뮤지션과 배우들이 그들의 예술혼을 불태우고 있는데요. 알프스 산맥과 빙하가 녹아 만들어진 호수, 그 천혜의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몽트뢰의 레만 호숫가에서는 여름마다 뜨거운 음악축제가 열립니다. 바로 몽트뢰 재즈 페스티벌(Montreux Jazz Festival). 그 뜨거운 열기 속으로 들어가 보죠.



몽트뢰 재즈 페스티벌(Montreux Jazz Festival)

‘몽트뢰 재즈 페스티벌’은 지난 1967년 한 열성적인 재즈 팬에 의해 시작됐습니다. 당시 몽트뢰 관광청에서 일하던 클로드 노브스(Claude Nobs)가 제안한 것인데요. 첫 해에 단 3일짜리 공연으로 시작됐던 페스티벌이 올해로 벌써 46회를 맞은 것입니다. 올해 몽트뢰 재즈 페스티벌(www.montreuxjazzfestival.com)은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4일까지 열렸습니다. ‘재즈 페스티벌’이지만 록, 소울, 펑크, 레게, 댄스, R&B 등 다양한 뮤지션들이 참여하는데요. 올해도 바비 맥퍼린(Bobby McFerrin), 팻 매스니(Pat Methney), 토니 베넷(Tony Bennett), 세르지오 멘데스(Sergio Mendes) 등 유명 재즈 뮤지션들은 물론 밥 딜런(Bob Dylan), 밴 모리슨(Van Morrison), 앨라니스 모리셋(Alanis Morissette), 제시 제이(Jessie J) 등 장르를 불문한 유명 뮤지션들이 레만 호숫가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사실상 내로라할 뮤지션들의 공연은 오디토리움 스트라빈스키(Auditorium Stravinski)와 마일스 데이비스 홀(Miles Davis Hall)에서 유료로 진행되는데요. 마일스 데이비스, 레이 찰스(Ray Charles), 데이빗 보위(David Bowie), 프린스(Prince), 필 콜린스(Pil Collins), 밥 딜런(Bob Dylan), 스팅(Sting) 등이 이미 이들 무대를 거쳐 갔습니다. 하지만 몽트뢰 재즈 페스티벌의 매력은 유명 뮤지션을 만나는 것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시내와 호수를 따라 2백여 개에 달하는 아마추어 밴드의 공연을 즐길 수 있고, 세계의 음식과 문화도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몽트뢰에 도착하는 순간 여러분도 페스티벌의 열기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뿐인가요? 공연이 끝난 뒤에도 밤늦도록 이어지는 여흥, 짐작할 수 있겠죠?

레만호에 새겨진 수많은 예술혼

호수라고는 하지만 레만호는 그 면적이 5백여 km²에 달해, 호수를 따라 몽트뢰는 물론 제네바, 로잔, 브베 등 수많은 마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호숫가를 달리는 기차, 그 호수 너머의 알프스, 호수 안쪽에 자리 잡은 아기자기한 집들, 넓디넓은 포도밭. 그 황홀한 그림 덕분인지 수많은 예술가들이 레만 호숫가에 머물며 유명



한 작품들을 쏟아냈는데요. 일단 몽트뢰에 도착하면 누구나 그룹 퀸(Queen)의 리더였던 프레디 머큐리의 동상을 찾습니다. 말년을 몽트뢰에서 보낸 그는 지인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면 몽트뢰로 가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그룹 딥 퍼플(Deep Purple)은 몽트뢰에 음반작업을 하러 왔다 마을 한 가운데 자리한 카지노 화재사건에 영감을 얻어 그 유명한 ‘스모크 온 더 워터(Smoke On The Water)’를 만들었습니다. 음악가 외에도 루소, 바이런, 헤밍웨이, 찰리 채플린, 오드리 헵번 등이 레만호를 따라 거닐며 깊은 흔적을 남겼는데요. 여러분도 레만호에 가면 잠재된 예술혼이 살아날지 모릅니다.

몽트뢰 어떻게 갈까?

여행객들에게 스위스는 참으로 경이로운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프랑스, 북쪽으로 독일, 동쪽으로 오스트리아, 남쪽으로는 이탈리아. 덕분에 스위스에 가면 지역별로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를 각각 사용하는데요. 몽트뢰에서는 불어를 씁니다.

우리나라 관광객들에게 스위스의 중심은 융프라우에 오를 수 있는 인터라켄이겠죠? 그 인터라켄에 가려면 스위스 취리히나 제네바 공항을 통해 들어가야 하는데요. 취리히와 제네바를 연결하는 구간이 스위스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한다하여 골든 패스 라인(Golden Pass Line)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몽트뢰는 제네바로 향하는 골든 패스 라인의 끝자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네바 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다시 기차로 1시간 30분을 달려 몽트뢰에 도착했습니다. 레만 호숫가에 위치한 몽트뢰는 그 절경 덕분에 스위스에서도 손꼽히는 고급 휴양지인데요. 특히 여름이면 재즈 페스티벌 때문에 숙소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로잔에 숙소를 잡고 몽트뢰에 오가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2013년 몽트뢰 재즈 페스티벌

내년 몽트뢰 재즈 페스티벌은 7월 5일부터 20일까지 열립니다. 저도 올해 급하게 일정을 잡느라 보고 싶은 공연을 놓쳤는데요. 내년에 스위스 여행을 계획한다면 몽트뢰 재즈 페스티벌에 꼭 참여해 보세요. 이삼일 정도 일정을 잡아 공연은 물론 아름다운 레만호 주변 마을, 로잔, 브베, 시옹, 시옹성, 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포도 재배지역, 라보(Lavoux)에서 자연이 주는 풍요로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페스티벌 기간에는 몽트뢰에서 루체른으로 출발하는 골든 패스 파노라마 열차와 레만호를 달리는 유람선에서도 재즈 향연을 즐길 수 있으니 색다른 경험도 놓치지 마시고요. 또 스위스의 대표 도시인 루체른과 취리히에서도 여름 내 다양한 축제가 펼쳐집니다. 알프스와 호수를 누비며 눈을 기쁘게 해줬다면, 하루쯤은 이들 도시의 음악축제에 참가해 귀를 달래주자고요!

글 | 윤하정

KBC 앵커, 조흥은행 아나운서, TBS 방송기자 등 방송활동과 YES24 공연매거진·(주)좋은콘서트·삼성전자 웹진 등의 공연리뷰 및 인터뷰 기자로 활동하였으며, 〈지금 당신의 무대는 어디입니까〉를 저술하고, 현재 영국 유학중이며 유럽 공연기획을 준비 중이다.

시즈오카와 하마마스

글 | 이장직

중앙일보 음악전문 기자를 역임하고, 『위기의 아트센터』, 『레인보우 클래식』 등의 저서가 있으며, 현재 〈월간 객석〉 선임기자로 활동 중이다.





도쿄에서 신칸센 히카리를 타고 오사카로 달리다 보면 빠른 속도로 지나가더라도 금방 눈에 띄는 거대한 건물을 두 개 볼 수 있다. 하마마스 액트 시티와 시즈오카 그란십이다. 하마마스(浜松)와 시즈오카(静岡)를 대표하는 문화시설인데 왜 시끄럽고 진동 심한 철로 변에 자리 잡고 있을까. 국내에서는 용산역 철도기지과 화물창고 자리에 초고층 빌딩이 들어설 계획인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일찌감치 기차역 부근의 공터에 복합문화시설을 세웠다.

우선 신칸센으로 도쿄에서 1시간 만에 도착하는 시즈오카로 가보자. 세계적인 차(茶)의 명산지다. 어디서든 후지산이 보인다. 일본에서 장미, 단새우, 가다랭이, 밀감, 와사비 생산량 1위를 자랑한다. 일본에서 여관과 별장이 가장 많은 곳으로도 유명하다. 기차역에서 JR 도카이도호선을 갈아타고 3분 걸려 히가시시즈오카(東静岡)역에 내리면 남쪽 출구 연결 통로로 2분쯤 걸어가면 후지산(富士山)을 배경으로 웅대한 위용을 드러내는 시즈오카 예술컨벤션센터 ‘그란십(Granship)’에 도착한다. 건물은 마치 망망대해를 향해 출발할 준비를 막 끝낸 거대한 배 모양이다. 그란십, 글자 그대로 큰 배라는 뜻이다. 메이지 유신 전까지 200년 동안 일본 열도를 호령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가 도읍을 정했던 유서 깊은 곳이라서 일까. 건물의 정면은 사무라이의 투구를 연상케 한다. 그란십은 꿈의 바다, 문화의 바다를 향해하는 거대한 배다.

2006년 국제공항까지 개항한 시즈오카 현이 학술 문화 예술의 국제교류 거점으로 마련한 문화의 발신기지다. 1999년 4월 이곳에서 열린 제2회 국제극장을림픽 개막에 맞춰 그란십이 들어선 자리는 원래 일본철도(JR)의 화물창고 겸 차량 보관소였던 곳이다. 히가시 시즈오카역 주변을 정비한 다음 이를 신도시 개발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대형 컨벤션 문화센터를 건립하게 된 것이다. 고속철도의 도입으로 고가 철로가 세워지고 화물 운송의 주도권이

컨테이너 트럭으로 옮겨가면서 철로 주변의 차고나 창고는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규모가 줄어드는 추세다. 1996년에 착공, 3년 만에 완공된 ‘그란십’은 시즈오카 현 생활 문화부 소유의 건물로 시즈오카 현 문화재단이 건물을 위탁 받아 관리와 운영을 맡고 있다. 기차역에 위치해 관객의 접근성이 뛰어난데다 신칸센 창가로 비치는 이 건물의 웅대함은 시즈오카의 상징물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다.

4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메인홀 ‘바다’는 천장 높이가 58m나 되는 다목적홀이다. 객석 배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가변형 무대다. 무대 정면의 출입구를 열면 1만5500여㎡의 잔디밭 광장으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팝공연, 스포츠 이벤트, 박람회 등 실내와 야외를 넘나드는 다채로운 무대 연출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6개 국어 동시통역 시설을 갖춘 879석 규모의 중극장 ‘대지’는 연극, 뮤지컬, 발레 공연과 강연회가 열리는 곳이다. 5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회의실 ‘바람’에서는 정면의 창문을 통해 후지산의 웅대한 모습이 보여 금상첨화다. 또 400석 규모의 시즈오카 예술극장은 시즈오카 예술극장 재단이 직접 제작하는 공연물

을 상연하는 공간이다. U자 모양의 객석 배열로 최적의 공연 감상 분위기를 연출한다. 이 밖에도 회의실(19개), 리셉션홀, 전시실, 영상실, 탁아소, 레스토랑, 카페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그란십’은 4개의 극장·회의실이 하나의 건물 속에 유기적으로 배치돼 있는, 길이 200m, 폭 80m, 높이 60m의 거대한 ‘문화의 향공모함’이다.

설계자인 이소자키 아라타는 큐슈 오이타 태생으로 도쿄대 건축학과 출신이다. 군마현 미술관, 츠클바센터 빌딩, 바르셀로나 올림픽홀, 교토콘서트홀, 나라(奈良) 백주년 기념관 등을 설계했다. 건물 설계뿐만 아니라 로고와 안내 표지까지 유명 디자이너에게 제작을 의뢰했다. 로고를 디자인한 자비에 에란도 마리스칼은 스페인 발렌시아 태생으로 바르셀로나 올림픽 공식 마스코트인 코비를 디자인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번에는 시즈오카에서 30분 더 가면 내리는 하마마스다. 도쿄와 오사카 사이의 딱 중간에 있다. 시즈오카와 더불어 시즈오카 현의 양대 도시다. 장어덮밥과 우나기 파이, 밀감, 일본전통의상 등의 특산물로 유명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야마하, 가와이, 롤랜드 악기와 스키 오토바이를 생산하는 공업 도시이자 음악 도시다. 일본에서 생산되는 악기란 악기는 모두 여기서 나온다고 보면 된다. 여담이긴 하지만 가와이 피아노는 야마하 피아노에서 근무하던 한 기술공이 회사를 나와서 바로 옆 동네에 차린 악기 회사다. 야마하 창업주가 노발대발해서 온갖 방해로 일삼을 만도 한 일이었지만 지금까지 사이 좋게 일본 악기업계를 이끌어가고 있다. 하마

마스는 이웃에 있는 시즈오카처럼 기차역 주변의 대규모 차량기지를 재개발해 국제규모의 컨벤션 문화도시로 떠올랐다.

도쿄와 오사카를 잇는 신칸센이 통과하는 도카이도(東海道)선을 고가 철도로 만들기 위한 구상은 1962년부터 시작되었다. 1970년 하마마스 역 주변의 토지 계획을 위한 도시계획을 끝낸 뒤 1979년 도카이도선 고가화 사업이 완성되었다. 1982년에는 하마마스역 북구(北口)에 버스터미널을 완공했고, 1987년 3월에 역 주변의 토지구획 정리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국철 용지 가운데 일부를 시에서 매입했다. 이곳에 들어선 대규모 종합 문화컨벤션센터가 액트 시티(ACT City)다. A는 아트(Art), C는 커뮤니케이션과 커뮤니티, T는 테크놀로지와 토탈 매니지먼트의 약자다. 그러나 결국에는 ‘행동하는 도시’다. 음악의 도시답게 하모니카를 닮은 건물 ‘액트 타워’는 높이가 213m로 하마마스에서 가장 높은 45층짜리 건물이다. 공사비만 1,664억엔이 들었다. 이곳에서는 모든 사람





이 능동적인 연기자(Active Actor)가 된다. 음악과 문화, 산업과 기술의 교류거점이다. 17층 규모의 오키타 호텔, 콘서트홀, 오페라 극장, 악기 박물관, 갤러리, 음악원, 레스토랑 등이 들어섰다. 자본금 21억엔(약 250억원)으로 시작한 하마마스 액트시티 문화재단이 1993년 7월부터 설립돼 운영을 맡고 있다. 문화재단의 모토는 '키우고, 만들고, 교류하고, 전달한다'이다. 개관 1개월 후인 1994년 11월 쇼팽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하마마스 국제 피아노 콩쿠르, 뮤직 시티 페스티벌 등 굵직한 음악행사도 열린다. 콘서트홀은 1030석, 오페라 극장은 2336석 규모다. 프랑스제 파이프 오르간도 갖췄다. 560명까지 수용 가능하고 6개 국어를 동시 통역할 수 있는 다양한 크기의 회의실, 전시실, 이벤트 홀이 10여개나 된다. 총 수용 인원은 5300명이다.

기차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하마마스 악기 박물관은 일본 유일의 공립 악기 박물관이자 동양 최대의 음악 박물관이다. 피아노의 발명자인 크리스토포리의 피아노 등 보물급 동서양 악기 3200여점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의 장구를 비롯해 아시아, 아프리카의 민속 악기는 물론 일본의 개화기 때 공립학교에서 사용했던 풍금 등이 전시되어 있다. 일본 악기산업의 메카인 만큼 하마마스 악기 산업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코너도 마련했다. 소장 악기를 실제로 연주한 영상물을 5년에 걸쳐 제작했고 모든 악기는 바로 앞에 놓여 있는 헤드폰으로 악기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도

록 했다. 악기 박물관 내에 있는 연수교류센터에서는 14개의 세미나실, 10개의 회의실을 갖추고 액트 음악원과 시즈오카 예술문화대학과 연계해 클래식 음악과 악기 제조 기술의 역사에 관한 세미나를 실시하고 있다.

하마마스는 1989년 음악진흥기금을 신설한 데 이어 1994년 '액트 시티'의 개관과 함께 국제피아노콩쿠르, 국제취주악대회, 세계 청소년합창제, 야하마 재즈페스티벌 등 굵직한 국제행사를 유치했다. 1991년부터 매년 11월에 열리는 하마마스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는 2009년 한국 출신의 신예 피아니스트 조성진 군이 당시 15세의 나이로 1위에 최연소 입상한 바 있다. 또 1998년에는 액트시티 음악원을 설립하는 등 '음악의 도시'를 자처하고 나섰다. 하마마스역 광장에는 매일 셋째주 토요일 브라스밴드 무료공연이 열린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액트 시티 팝스 오케스트라도 크고 작은 공연을 꾸미고 있다. 하마마스에서는 사시사철 거리마다 흥겨운 음악 선율이 흐른다.

이탈리아 오페라(2)

도니제티와 벨리니

글 | 송종건

영국 런던 라반센터에서 무용정치학, 무용사, 무용미학을 전공하고 『무용예술의 존재론적 특성과 비평』, 『무용 그리고 '움직임의 연기』, 『무용과 비평』 등의 저서가 있으며, 현재 〈무용과 오페라〉 발행인 겸 작가로 활동 중이다.



이탈리아에서는 17세기말부터 100년간 아리아 중심의 오페라가 전성시대를 맞이하여 성악가들의 가창력을 향상 시키는데 커다란 도움을 주게 된다. 하지만 기교 중심의 오페라는 극과 음악의 조화된 구성미를 점차 잃어버림으로서 오페라 본연의 취지와는 동떨어진 여러가지 문제점을 야기 시킨다. 이에 보다 현실성을 표현하는 새로운 오페라를 요구하는 시대가 도래한다. 이러한 시기에 등장한 로시니는 근대 이탈리아 오페라의 선구자이며 완성자이다. 그는 18세기 이탈리아 오페라를 완성함과 동시에 연극과 음악적인 요소의 새로운 조화를 꾀하면서 19세기 이탈리아 벨칸토 오페라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렇게 로시니가 마련해 놓은 벨칸토 오페라를 도니제티와 벨리니는 더욱 발전시키게 된다.

가에타노 도니제티는 1797년 이탈리아 베르가모에서 태어났다. 1814년 볼로냐음악원에서 로시니의 스승 마테이 신부에게 음악을 배운다. 1818년 베니스에서 처음 발표한 오페라 '보르고냐의 엔리코'가 호평을 받아 작곡가의 길로 들어선다. 1830년 밀라노에서 초연된 '안나 볼레나'로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었고, 이후 '사랑의 묘약',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루크레시아 보르지아', '샤모니의 린다', '돈 파스칼레' 등으로 큰 명성을 얻게 된다. 그러나 신경쇠약으로 51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된다. 도니제티는 70여 편에 달하는 오페라를 작곡하였다. 오늘날에도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오페라 부파('돈 파스칼레', '사랑의 묘약')와 멜로 낭만오페라('여왕 삼부작', '루크레시아 보르지아',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오페라 코믹('연대의 딸') 이외에도 파르사, 오페라 세리아, 세미세리

아, 그랜드 오페라 등 거의 모든 장르의 오페라를 작곡하였다.

도니제티의 초기 작품은 로시니의 영향을 받아 선율 중심의 극적인 장면을 중시하였지만 원숙기에 접어들면서 효과적인 관현악 배치와 함께 화려한 성악부를 드러나도록 하였다. 벨칸토 세 거장 중 극적인 작곡기법이 가장 뛰어나다는 평을 듣는 도니제티는 청중이 즐길 수 있는 무대 효과와 함께 낭만적인 소재를 통해 드라마적인 요소를 드러나게 하였다. 또한 낭만적 소재라 할지라도 너무 주관적으로 흐르지 않고 형태를 다듬어 성악 기교의 정수를 과시할 수 있게 작곡하여 관객들의 엄청난 인기를 모았다. 그의 작품은 오페라 형식에서도 세리아와 희극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면서 오페라 사에 또 다른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된다.

빈센초 벨리니는 1801년 시칠리아 섬 카타니아의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났다. 당시 카타니아 주교좌성당의 음악 감독이었던 조부에게서 최초로 음악교육을 받았다. 이후 나폴리 음악원에 진학하게 되고 이 시절부터 도니제티와 알게 되었다. 벨리니는 1824년 로시니의 오페라 '세미라미데'를 보고 오페라에 헌신할 결심을 하게 되었다. 음악원 재학시절인 1825년 발표한 첫 오페라 '아델손과 실비나'가 호평을 받았고 이를 눈여겨 본 극장의 흥행사가 '비앙카와 페르난도'를 의뢰하여 이 작품 또한 나폴리에서 성공을 거둔다. 이렇게 초기부터 관객과 제작자 모두를 만족시켜 밀라노 라 스칼라극장에서 그의 3번째 오페라 '해적'을 공연하여 이 역시 큰 성공을 거두면서 이때부터 도



니제티와 더불어 벨리니는 이탈리아 오페라계의 기대주로 성장한다. 이후 ‘해적’에서 만난 대본가 F.로마니와 함께 ‘자이라’ ‘카플렛티가와 몬테큐가’, ‘몽유병의 여인’, ‘노르마’, ‘텐다의 베아트리카’ 등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그는 당대 최고의 오페라 작곡가로 인정을 받는다. 하지만 ‘텐다의 베아트리카’가 흥행에 실패하자 그 책임 소재를 두고 대본가 로마니와 크게 다투어 두 사람을 결별을 하게 된다.

1833년 파리 방문했을 때 로시니의 권유로 그의 최후大作 ‘청교도’를 작곡하여 파리의 이탈리아 극장에서 역사적인 대성공을 거둔다. 오페라 ‘청교도’는 성악의 기교 면에서 고난이도를 요구하였는데, 공연의 성공은 당시 유명가수였던 그리지, 말리브란, 탄브리, 루비니 등의 역할에 힘입은 바 크다. ‘청교도’의 초연 얼마 후 파리 근교 자신의 집에서 오랜 지병이 악화되어 10편의 주옥같은 오페라 작품을 남겨두고 34세의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된다. 벨리니가 활동하던 시대의 이태리 오페라는 뛰어난 명가수의 목소리와 기교, 선율과 표현에 중점을 둔 시대였다. 벨리니는 로시니나 도니제티와는 달리 오페라 세리아만 작곡하였고, 앞선 두 작곡가가 다작이고 작곡의 속도가 빠르는데 비해 벨리니는 한 작품에 심혈을 기울이는 스타일이었다.

벨리니의 가장 큰 특징인 아름다운 선율과 화려한 콜로라투라, 긴 호흡으로 노래되는 아리아는 벨칸토의 백미로 손꼽힌다. ‘정결한 여신’에서 보여주듯 콜로라투라의 패시지를 사용하면서도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는 절제를 볼 수 있다. 그는 벨칸토 오페라 작곡가 중 가장 귀족적이고

시적인 음악가로 인정받는다. 음악과 어울리게 가사를 표현하기 위해 아리아 뿐 아니라 레시타티보에서도 음악적인 표현을 시도하면서 감정을 표현하였다. 그의 음악은 언제나 슬픔이 깔려있으면서 화려하다기 보다는 섬세하고 정교한 음악이다. 숭고한 느낌을 줄 정도로 길고 우아한 형태의 유려한 선율 사용하고 있다. ‘몽유병자’, ‘노르마’ ‘청교도’ 등에 나오는 아리아들은 서정적이고 세련되며 감각적이고 노래를 통한 인물 묘사 또한 뛰어나다. 오페라에서 벨리니는 자신의 취약점인 관현악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합창을 사용하면서 밀도감 있게 오페라를 진행시켰다. 관현악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언제나 노래가 돋보이도록 극대화 시킨 작곡기법을 사용했다.

이런 아름다운 음악의 그 이면에 벨리니는 오페라 속에 정치의식을 강하게 담았다. ‘노르마’에서는 로마제국지배에 대한 갈리아의 민족저항을 다루었고 ‘텐다의 베아트리카’에서는 이탈리아 오페라 최초로 자국의 역사를 오페라 속에서 심도 있게 다루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로시니와 도니제티의 인기작에는 민족적인 문제가 눈에 띄게 등장하지는 않는 반면 벨리니는 당시 오스트리아 지배하에 있던 조국의 상황을 은유적으로 작품 속에 담고 있었다. 2회에 걸쳐 살펴본 벨칸토 오페라는 18세기의 이탈리아 오페라처럼 성악 기교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 19세기 낭만주의를 바탕으로 극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음악이 중심이 되는 오페라이다. 그리고 로시니, 도니제티, 벨리니가 벨칸토 오페라를 완성하고 만개시킨다. 그리고 이들은 곧이어 등장하는 오페라의 최고봉 베르디의 앞길을 밝혀주면서 사실주의 오페라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다.

얀 스텐의 성 니콜라스 축제

글 | 황주영

미술 칼럼니스트로 미술사와 정원사 관련 다양한 학회 논문을 발표하고 있으며, 현재 번역과 집필, 강의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얀 스텐, 〈성 니콜라스축제〉, 1665~1668년경, 캔버스에 유채, 82x70.5cm,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

12월이 되면 온 시내가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물들고, 아이들은 종교에 상관없이 산타 할아버지가 올 때는 어떤 선물을 주실까 기대하며 즐거워한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이미지 중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것 중 하나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의 모습이다. 붉은 옷을 입고, 하얀 수염이 풍성한 백발의 풍채 좋은 할아버지의 모습은 사실 1930년대 코카콜라의 광고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것이고 실제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의 원조는 사실 네덜란드와 벨기에 지역에서 특히 사랑받는 성인인 니콜라스 주교이다. 3세기 소아시아(오늘날의 터키)의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 해적에 인질로 잡힌 이들을 구해냈고, 이런 연유로 어린이와 선원들의 수호성인이 되었다. 그의 전설이 북유럽으로 전파되어 구전되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가 덧붙여졌고, 이름도 성 니콜라스(Saint Nicholas)를 부르는 네덜란드어 진터클라스(Sinterklaas)가 되었다. 신대륙으로 건너간 네덜란드인들이 성 니콜라스 축일을 기념하면서 산타클로스(Santa Claus)로 변형되었다.

선행을 베푼 성 니콜라스의 축일인 12월 6일 즈음이면, 가톨릭 신자들은 자기 주변의 가난한 이웃들을 도왔다. 12세기에 프랑스와 플랑드르의 수녀들이 축일 전날 가난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던 풍습이 오늘날 크리스마스이브에 선물을 주는 것의 기원이 되었다. 오늘날에도 네덜란드와 벨기에, 프랑스 북부 지역에서는 12월 5일과 6일 사이에 성 니콜라스 축제가 열리고, 크리스마스보다는 이날에 아이들에게 선물을 준다. 벽난로 앞에 신발을 두면 밤사이 성 니콜라스가 굴뚝을 타고 내려와 착한 아이의 신발 속에는 선물을 가득 넣어두지만, 말을 잘 듣지 않은 아이에게는 선물을 하나도 주지 않거나 아니면 회초리를 넣는다고 한다. 이런 성 니콜라스 축제의 모습을 잘 담은 작품으로 17세기 네덜란드 화가 얀 스텐(Jan Steen)의 〈성 니콜라스 축제(The Feast of Saint Nicholas)〉가 있다. 네덜란드 미술이 전성기를 누리던 17세기에 활동한 얀 스텐은 서민들의 일상생활을 묘사한 장르화로 유명하다. 아버지가 운영하던 여인숙에서 얻은 다양한 경험은 그의 작품의 토대가 되었고, 일상 속의 에피소드와 유머가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성 니콜라스축제〉의 세부



〈오늘날 네덜란드의 성 니콜라스 축제와 니콜라스 성인의 모습〉

그는 성 니콜라스 축일을 주제로 하는 작품을 여러 제작했고, 〈성 니콜라스 축제〉는 당시 네덜란드의 중산층 가족의 단란한 일상을 보여준다.

작품은 성 니콜라스 축제 날 아침 온 가족이 모여 즐거워하는 중산층 가정의 전형적인 실내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아이들은 밤사이 니콜라스 성인이 두고 간 선물을 보며 갖가지 반응을 보인다. 화면의 앞쪽에 있는 금색 옷을 입고 있는 어린 여자 아이에게 우선 눈길이 간다. 이 아이는 어른들 말씀을 잘 들었는지, 상으로 받은 인형과 과자와 장난감이 가득 담긴 동이를 들고 기뻐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여자아이의 오른쪽에 있는 말쑥꾸러기처럼 생긴 아이는 흘쩍이고 있다. 뒤에 선 누이는 아이의 신발이 비어 있다고 놀리고, 다른 형제는 그가 회초리를 받았다고 손가락질하며 웃고 있다. 하지만 그림 뒤편에 있는 할머니가 커튼 뒤에서 무언가를 꺼내며 웃고 있어, 이 흘쩍이는 아이에게도 희망은 있다.

어머니가 선물을 가득 받은 아이에게 무얼 받았는지 보여 달라고 하는 동안, 화면 중심에 앉아 있는 아버지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듯 조용히 미소를 짓는다. 오른쪽에는 한 아이가 어린 동생을 품에 안고 굴뚝을 가리키며 성 니콜라스가 어떻게 집에 들어왔는지를 설명하고, 다른 아이도 놀라워하며 그쪽을 보고 있다.

큰 명절인 만큼 먹을 것도 풍성하게 마련했다. 화면 왼쪽 하단에 놓인 갖가지 빵과 과자는 성 니콜라스 축일에 아이들이 받는 선물이고, 각각 의미를 담고 있다. 가령 화면 오른쪽 탁자에 세워져 있는 커다란 마름모꼴 빵은 특별한 날에만 먹는 풍요와 감사를 나타내는 음식이다. 탁자 위에는 과일과 돈이 놓여 있는데, 지참금이 없어 결혼을 하지 못하는 세 처녀를 위해 굴뚝을 통해 몰래 돈을 주었다고 하는 성 니콜라스의 전설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시민 중심의 경제가 발달한 17세기 네덜란드에서 중산층은 새로운 중요한 고객이 되었고, 이들은 특별한 배경 지식이 없어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일상생활의 모습을 집 벽에 걸 수 있을 크기로 그린 장르화를 선호했다. 얀 스텐의 작품에는 해학과 유머가 가득하고, 이전의 미술에 나타나던 엄숙함과 절제는 찾아보기 힘들다. 어지러운 장면을 가리켜 “얀 스텐네 집(een huishouden van Jan Steen)”이라고 부르는 관용어가 네덜란드어에 있을 정도로 얀 스텐은 왁자지껄하고 소란스러운 정경을 즐겨 그렸지만, 그림을 좀 더 들여다보면 각각의 인물들의 몸짓과 눈길로 서로 교감하고 있고 색조도 통일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동시대의 화가인 베르메르도 일상의 모습을 주제로 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얀 스텐은 절제되지 않은 순간을 포착하여 더욱 생생한 분위기를 전달한다.

슬프지만 아름다운 사랑 푸치니의 오페라

La Bohème

글 | 김수연

KBS울산 라디오 「러브 클래식」 진행자, 라디오·TV 프로그램 진행 및 작가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어느덧 12월이다. 날이 추워 그런지 한 장 남은 달력이 유난히 허전하게 느껴진다. 2000년이었던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즈음이라 미래에 대한 막연함으로 고민이 많던 시기였다. 그러다 기분 전환도 할 겸 작정하고 보게 된 뮤지컬이 '렌트' 다. 날이 무척 덥던 여름날, 뮤지컬 '렌트' 는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에 우리나라 초연으로 무대에 올려졌고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는 내가 시간이 되는 날 그것도 남경주, 최정원, 전수경 같은 내노라하는 뮤지컬 배우들이 나오는 작품이라 앞뒤 썰 것 없이 이 작품을 봤던 거 같다. '렌트(집세)'란 제목에서 짐작하듯 이 작품은 1990년대 뉴욕을 배경으로 해 삶이 팍팍한 젊은 이들의 모습을 암울하면서도 비관적으로 그렸다. 하지만 록 뮤지컬이라 그런지 록 콘서트장을 방불케하는 강렬하면서도 뜨거운 열기가 있었고 젊은 층의 감성을 건드리는 넘버들로 그 절망감을 조금은 포근하게 감싸주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에이즈, 마약중독, 불안한 미래에 목표를 상실한 뮤지컬 속 젊은이들의 모습에서 IMF라는 어두운 터널을 거쳐 손에 잡히는 미래를 그려보겠다고 허우적거리는 당시 나와 같은 처지의 동년배들의 모습이 겹쳐졌다. 그래서 뮤지컬의 마무리가 좀 급작스럽긴 했지만 여주인공이 극적으로 살아나고 출연자 모두가 삶에 대한 의욕과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희망을 노래하며 끝나는 것이 참 마음에 들었다. 어찌됐든 희망을 노래하며 끝났다는 안도감이랄까 나의 삶도 결국은 곧 그렇게 희망으로 귀결될 거라는 위안을 받았던 거 같다.

사실 이 작품 '렌트' 가 이탈리아의 작곡가 자코모 푸치니(1858~1924)의 오페라 '라 보엠' 을 각색했다는 것은 많이 알려졌다. 하지만 뮤지컬과 오페라로 서로 장르가 다른 만큼 표현 방식도 다르고 스토리도 조금은

차이가 있다. ‘라 보엠’의 원작은 프랑스 작가 앙리 뒤르제의 소설 ‘보헤미안의 생활 정경(Scenes de la vie de Boheme)’이다. 현실에 바탕을 둔 사실주의적인 작품으로 1845년부터 49년까지 풍자잡지인 ‘르 코르세르-사탄(Le Corsiare-Satan)’에 연재된 단편소설이었고 연극으로 먼저 공연이 된 뒤 얻은 대중적인 호응에 힘입어 오페라로까지 제작이 됐다. 그러면서 오페라가 전 세계적인 유명세를 타게 됐고 이젠 ‘라 보엠’이라고 하면 오페라부터 먼저 떠올리게 됐다.

푸치니의 오페라 ‘라 보엠’은 1830년대 파리 뒷골목을 배경으로 보헤미아 기질을 가진, 그러니까 어딘가에 메이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젊은 이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 찢어지게 가난하지만 예술과 자유를 꿈꾸는 시인 로돌포, 화가 마르첼로, 철학자 콜리네, 음악가 쇼나르가 친형제 못지 않은 우애를 나누며 살아가고 있고 여기에 평범한 여공으로 단아하면서도 소박한 전통적인 여성상을 보여주는 미미가 나와 로돌포와 슬프지만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게 큰 줄거리다. 몹시 추운 크리스마스 이브, 친구들이 모두 크리스마스를 즐기러 시내로 나간 사이 다락방 아래층에 사는 미미가 촛불이 꺼졌다며 불 좀 붙여달라고 문을 두드린다. 그리고 로돌포와 미미의 사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이 둘은 서로 사랑하지만 결국 헤어진다. 미미는 갈수록 병이 깊어져 로돌포에게 짐이 되는 것이 싫었고, 로돌포는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아무것도 해 줄 수 없는 자신을 비난한다. 그러나 헤어진 동안 두 사람은 서로를 잊지 못했고 결국 미미는 죽음을 앞두고 로돌포의 다락방으로 찾아와 그의 곁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이는 어찌 보면 너무나 진부한 결론이다. 하지만 이 작품 ‘라 보엠’을 어떠한 극적 반전도 없는 예측 가능한 그저그런 오페라로 규정할 수는 없다. 특히 19세기 초 프랑스 파리에 혁명의 기운이 들끓고 있을 때 푸치니가 이런 감성적인 작품을 만들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의 안목에 박수를 치지 않을 수 없다. 그것도 현실을 미화하지 않고 날 것 그대로를 담은 베리스모(사실주의) 오페라가 인기였던 시대에 구시대의 흐름이었던 센티멘털한 낭만주의를 작품에 덧입힌 용기와 또 이렇게 작은 사연을 아름답고 서정적으로 묘사할 수

있었던 푸치니의 탁월함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푸치니의 오페라 ‘라 보엠’엔 유독 아름다운 아리아가 많다. 인간의 내면을 관통하는 사랑의 감성을 자극한다고 할까. 불을 얻어가려는 순간 촛불이 꺼지며 열쇠를 떨어뜨리고 이에 두 손을 맞잡게 된 로돌포와 미미. 그 순간 로돌포가 부르는 아리아 ‘그대의 찬 손’이 흐르는 장면은 숨이 멎는 듯하다. 이 아리아에서 로돌포는 자신이 시인이라고 말하며 미미의 맑은 두 눈에 마음을 도둑 맞았다고 고백하는데 이어 미미가 화답해 부르는 아리아 ‘내 이름은 미미’를 부르는 장면까지가 그야말로 이 오페라의 백미가 아닐까 싶다. 마치 내가 로돌포인양, 내가 미미인양 가슴이 설레며 오페라에 푹 빠지게 되는 장면이라고 할까. 이외에도 극적이면서도 감미로운 음악이 오페라 속에 참 많이 흐른다. 로돌포와 미미의 이중창 ‘오, 사랑스런 그대’, 헤어진 연인의 마음을 돌리려 부르는 무제타의 사랑스런 아리아 ‘무제타의 왈츠’ 등 오페라 ‘라 보엠’에선 푸치니의 극적이면서도 감미로운 음악을 많이 만나볼 수 있다.

곧 한해가 끝이 난다. 지난 시절 한번쯤 해본 애잔한 사랑 느낌을 이 오페라를 보며 다시 떠올려봐도 좋을 듯하다. 뮤지컬 ‘렌트’를 보며 느꼈던 지난 시절의 감성과 오페라 ‘라 보엠’을 보며 느끼는 지금의 감성은 또 다를 것이다. 그리고 연말이라 그런지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린 뮤지컬과 달리 비극으로 눈물짓게 하는 오페라의 한층 짙은 감성이 웬지 더 마음에 당긴다. 내가 생각하는 로돌포의 이미지와는 많이 다르지만 테너 라몬 바르가스와 소프라노 안젤라 게오르규가 함께 한 2008년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의 공연 실황이나 영화와 오페라의 경계를 없앤 테너 롤란도 비야손과 소프라노 안나 네트렙코 버전의 영화판 DVD도 괜찮지 않을까. 연말 푸치니의 오페라 ‘라 보엠’으로 슬프지만 아름다운 감성 충전을 해봐야겠다.

Arts Friend 공연·전시가이드

PERFORMANCE

뮤지컬 “맘마미아”

일 시 | 11. 23(금) 19:30 / 11. 24(토) 15:00 19:30
11. 25(일) 14:00 18:30 / 11. 27(화)~11. 30(금) 19:30
12. 1(토) 15:00 19:30 / 12. 2(일) 14:00

장 소 | 대공연장

입장료 | V석 120,000원 / R석 100,000원
S석 80,000원 / A석 60,000원

주 최 | (주)울산방송

■ 공연개요

ubc 울산방송 창사 15주년 기념 뮤지컬 공연

■ 프로그램

무대는 그리스 지중해의 외딴 섬 ...

젊은 날 한때 꿈 많던 아마추어 그룹 리더였으나 지금은 작은 모델의 여주인이 된 도나의 보살핌 아래 홀로 성장해온 소피는 약혼자 스카이의 결혼을 앞두고 아버지를 찾고 싶어 하던 중 엄마가 처녀시절 쓴 일기장을 몰래 훑쳐보게 되는데 ...

제16회 울산교육문화예술제

일 시 | 12. 4(화) 14:00

장 소 | 대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 최 | 울산광역시 교육청

■ 공연개요

각 급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예술 활동을 하는 교사, 학부모 중등학교 예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학생들이 함께하는 사제 동행

■ 프로그램

- 대숲(창작시낭송), Ascentium(관악합주)
- Sabra Dance(타악합주), 소고춤(무용)
- 시월의 어느 멋진 날에(2중창)
- 윌리엄 텔 서곡 중 스위스 군대의 행진곡
- The palms(피아노 3중주), 혼성합창, 사물놀이 등

2012 국악한마당

일 시 | 12. 4(화) 19:3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 최 | (사)한국국악협회 울산광역시지회

■ 공연개요

국악 관현악 창작곡 및 민요연곡 연주

■ 프로그램

- 국악실내악 아름다운 인생
- 25현금 3중주를 위한 민요연곡
- 경기민요(방아타령, 양산도, 경북고타령)
- 가야금산조 성금련류 가야금산조
- 제주민요(영주심경, 오돌또기, 너영나영)
- 국악실내악 길놀이, 국악관현악 신모듬

제15회 울산교사 리코더합주단 정기연주회

일 시 | 12. 5(수) 19:0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 최 | 울산교사 리코더합주단

■ 공연개요

관내 초등학교 교사들로 구성된 리코더합주단의 정기연주회로 클래식, 가요 등 다양한 음악을 리코더 합주로 연주

■ 프로그램

- 1부 : 울산교사 리코더합주단의 합주
- 2부 : 울산교사 리코더합주단의 중주, 합주

제3회 참소리 가야금 연주단 정기연주회

일 시 | 12. 7(금) 19:3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 최 | 참소리가야금연주단

■ 공연개요

가야금 합주와 가야금 병창 등을 병행하여 다양하게 연주되는 국악공연

■ 프로그램

- 강태홍류 가야금 산조
- 황토길
- 25현 가야금 합주곡
- 18현, 25현중주 가야금 연주
- 25현 판소 연주
- 판소리 한 대목
- 청산(12현산곡)
- 민요메들리

악극 “타향살이”

일 시 | 12. 9(일) 17:00

장 소 | 대공연장

입장료 | 전석 10,000원

주 최 | (사)한국연극협회 울산광역시지회

■ 공연개요

울산연극협회 소속의 7개 정극단 합동공연

■ 프로그램

일제시대 태화강 나루터에서 나룻배를 몰고 생계를 유지하던 용우는 도화골의 순옥과 사랑이 싹튼다. 병영 3.1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본 재봉은 그들의 시신을 황방산에 안치한다. 병영만세운동을 겪은 용우는 자신도 독립운동을 하겠다는 각오를 순옥에게 전하는데 ...

제8회 울산플루트콰이어 자선음악회 “미라클 아이즈 콘서트”

일 시 | 12. 9(일) 16:00 19:0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R석 50,000원 / S석 30,000원
A석 20,000원 / B석 10,000원

주 최 | 울산플루트콰이어

■ 공연개요

시각장애를 가진 바이올리니스트 김중훈, 플루티스트 배재영, 피아니스트 유지수 외 울산플루트콰이어 앙상블 단원들의 자선콘서트

■ 프로그램

- N.Paganini
- Sonata For violin & Flute No.6 In E minor, op3
- Caprice in a minor op.1 No.24
- P.Sarasate Navarra(Spanish Dance) For two violins and piano op33

남구 구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일 시 | 12. 11(화) 19:30

장 소 | 대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 최 | 울산 남구 구립교향악단

■ 공연개요

클래식 음악을 통해 울산 시민들의 정서함양 및 지방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하고 서교 및 교향곡, 가악곡, 합창곡 등을 연주

■ 프로그램

- 오케스트라 연주
- 바리톤 협연
- 합창단 협연
- 소프라노 협연
- 오케스트라 연주

제4회 클래식음악제

일 시 | 12. 11(화) 19:3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 최 | 울산음악협회

■ 공연개요

울산지역 아마추어 클래식 연주자와 음악협회 회원들의 합동공연

■ 프로그램

- 기악(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클라리넷)
- 성악(소프라노, 테너, 바리톤 독창)
- 합창(중창, 합창)
- 합주(오케스트라 협연)

“백합의 향” 종합예술제

일 시 | 12. 12(수) 19:00

장 소 | 대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 최 | 울산여고 총동창회

■ 공연개요

울산여고 개교 60주년을 기념한 음악, 무용 등 종합예술 공연

■ 프로그램

- 합창과 합주, 중창
- 실내악, 독주
- 현대무용 및 전통무용 등



※ 공연일정은 주최 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제11회 명정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일 시 | 12. 13(목) 19:0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 최 | 명정오케스트라

■ 공연개요

열한 번째 정기연주회를 통하여 지역의 많은 초등학교생들에게 문화적 경험을 제공

■ 프로그램

- 황제왈츠 등 4곡
- 성악 협연 2곡
- 바이올린 협연 1곡
-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등 3곡

제7회 이영아무용단 정기창작공연

일 시 | 12. 14(금) 19:30

장 소 | 대공연장

입장료 | 전석 10,000원

주 최 | 이영아무용단

■ 공연개요

울산 문화예술의 맥을 이어가고자 지역의 줄기 태화강을 주제로 한 창작무용 공연과 더불어 전통무와 대중음악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감각으로 전통의 대중적 보급을 위한

■ 프로그램

- 태화강연가 II
- 전통무
- 퓨전(전통무와 대중음악의 만남)

제3회 다문화합창단 정기공연

일 시 | 12. 14(금) 19:0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 최 | 울산다문화가정 사랑나눔회

■ 공연개요

울산거주 다문화가정 여성들로 구성된 합창단으로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를 돕는 공연

제6회 JCN 울산어린이합창단 정기연주회

일 시 | 12. 15(토) 19:30

장 소 | 대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 최 | JCN울산방송

■ 공연개요

울산지역 케이블방송인 JCN소속 어린이 합창단의 다섯 번째 정기연주회로 우리 가곡과 동요, 세계유명 가곡, 팝송을 주제로 공연

■ 프로그램

- 1부 : 우리 가곡&전래동요, 합창곡&크리스마스 캐롤
- 2부 : 세계유명가곡&팝송, 크리스마스 캐롤

제4회 콘체르티노 앙상블 정기연주회

일 시 | 12. 15(토) 17:0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5,000원

주 최 | 콘체르티노앙상블

■ 공연개요

피아노 듀오, 현악 4중주, 첼로 4중주 연주 등 다양한 클래식 연주를 한 곳에서 감상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프로그램

- Darius Scaramouche Op.165 for two piano
- Variations on a theme of Rossini for cello & piano
- Dvorak String Quartets No.12 "American"
- Tchaikovsky piano trio Op.50

2012 JDC기획공연 춤 오페라 Carmen

일 시 | 12. 16(일) 17:0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 최 | JDC김정숙무용단

■ 공연개요

오페라 Carmen을 춤 퍼포먼스로 각색하여 가족이 함께 보며 즐길 수 있는 영상과 노래, 춤이 어우러지는 공연

■ 프로그램

- Carmen과 호세의 이야기
- Carmen의 노래
- Carmen과 열정

제12회 삼신 윈드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일 시 | 12. 19(수) 19:00

장 소 | 대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 최 | 삼신윈드오케스트라

■ 공연개요

• 울산 대표 관악합주 단체의 해설이 있는 음악회
• 행진곡, 서곡, 영화음악, 가요, 팝송 등을 망라한 다양한 종류의 음악을 연주

■ 프로그램

- Voyage
- Vagina
- Crazy Little Thing Called love
- Critical Mass 외 다수곡

제4회 남구 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

일 시 | 12. 22(토) 19:30

장 소 | 대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 최 | 울산남구소년소녀 합창단

■ 공연개요

합창 및 오케스트라 공연을 통해 울산시민의 정서함양 및 지방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

■ 프로그램

- 글로리아, 새야 새야 파랑새야, 동심초(합창)
- 브람스, 베토벤, 캐롤 메들리(오케스트라)
- 크리스마스 캐롤 모음곡(합창+오케스트라)
- 뮤지컬 메들리, 가요(합창)

가족성탄뮤지컬 “호두까기 인형”

일 시 | 12. 22(토) 14:00 16:00

12. 23(일) 13:00 15:0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20,000원

주 최 | 플러스기획

■ 공연개요

어린이들이 컴퓨터 문화와 이기주의적인 생활에 익숙해져 날로 나약해져만 가는 현실의 안타까움에 세계 모든 어린이들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명작 중 “호두까기 인형”을 통해 어린이들의 정서 함양과 창의력 발달에 기여

■ 프로그램

- 1장 : 마리의 집(크리스마스의 노래)
- 2장 : 어두운 거실(생쥐들의 춤)
- 3장 : 동화의 나라(눈의 요정들의 춤, 동물들의 춤)
- 4장 : 생쥐대마왕 궁전(생쥐대왕의 노래)
- 5장 : 생강과자 마을(꽃의 요정의 춤, 사탕 요정의 춤)
- 6장 : 마리의집(행복한 크리스마스)

2012 이루마 크리스마스 콘서트 - 기억에 머무르다

일 시 | 12. 23(일) 18:00

장 소 | 대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 최 | (주)울산방송

■ 공연개요

- 한국 연주 음악의 새로운 장을 연 감성미학의 아티스트 이루마의 2011년에 이은 공연
- 크리스마스만의 특별한 설레임, 숨 막힐 듯 아련한 선율 속으로 안내

■ 프로그램

- 1부 : Chaconne, It's your day, Indigo, Sky 외 5곡
- 2부 : Kiss the Rain, Fotografia, Passing by 외 6곡

가족뮤지컬 “어린이 점프”

일 시 | 12. 29(토) 14:00 16:00

12. 30(일) 11:00 14:00 16:00

장 소 | 대공연장

입장료 | R석 25,000원 / S석 20,000원

주 최 | 극단 호두

■ 공연개요

화려한 무술 퍼포먼스의 신개념 뮤지컬로 어린이와 어른, 모든 세대를 만족시키는 공연

■ 프로그램

아기 돼지 삼형제 동요, 동요, 동스는 돼지 집안의 별종 중 별종이다. 어느 날 동스에 엄마가 삼형제에게 폭탄발언을 한다. "집을 떠나라~ 그리고 너희들이 평생 살 집을 만들어라~" 어쩔 수 없이 삼형제는 자신의 만의 집을 짓기 위해 머나먼 길을 떠나게 되는데 ...

Arts Friend

공연·전시가이드

※ 전시일정은 주최 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HIBITION

제12회 울산사생협회 정기전

기간 | 12. 1(토)~12. 5(수), 5일간

장소 | 제1전시장

주최 | 울산사생협회

■ 전시내용

울산사생협회 제12회 정기전으로, 60명의 회원들이 지난 1년간 현장사생을 통해 작업한 실경 위주의 미술 작품 60점 전시

제10회 뉴비전 사진동호회 정기전

기간 | 12. 1(토)~12. 5(수), 5일간

장소 | 제2전시장

주최 | 뉴비전 사진동호회

■ 전시내용

뉴비전 사진동호회의 제10회 정기전으로, 울산지역 다문화 가정의 행복한 가족을 촬영한 16명 회원들의 사진 작품 50점 전시

제8회 안남용 개인전

기간 | 12. 1(토)~12. 5(수), 5일간

장소 | 제3전시장

주최 | 안남용

■ 전시내용

사진가 안남용의 8번째 개인전으로, 예멘의 풍경과 사람들의 생활상을 담은 다큐멘터리 사진작품 60점 전시

박애자 문인화 개인전

기간 | 12. 1(토)~12. 4(화), 4일간

장소 | 제4전시장

주최 | 박애자

■ 전시내용

장미화, 백목련, 자목련화, 청포도화, 목단화, 창포화 등 아름다운 꽃을 주제로 한 문인화 작품 30점 전시

울산인물작가회 단체 교류전

기간 | 12. 6(목)~12. 11(화), 6일간

장소 | 제1전시장

주최 | 울산인물작가회

■ 전시내용

여덟 번째 울산인물작가회 정기전 및 단체 교류전으로, 다양한 표현방법으로 인물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 현대인물화가회 그룹(서울, 부산, 대구, 광주, 경기)과의 단체교류전을 통하여 울산 시민들에게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한 순수인물을 주제로 한 초상화 작품 50점 전시

울산미술협회 신입회원 특별전

기간 | 12. 6(목)~12. 11(화), 6일간

장소 | 제2전시장

주최 | 울산미술협회

■ 전시내용

2011, 2012년 울산미술협회에 신입으로 가입한 회원들이 준비한 다양한 소재와 장르의 미술작품 100점 전시

현병환 서양화 개인전

기간 | 12. 6(목)~12. 11(화), 6일간

장소 | 제3전시장

주최 | 현병환

■ 전시내용

아름다운 울산의 계곡, 화단에 피어있는 소담스런 꽃, 장생포 앞 바다에 떠 있는 배, 웅기, 장독대 등을 소재로 하여 직장생활을 하며 틈틈이 그려 모은 구상 작품 30점 전시

한국누드사진협회 울산지회 창립전

기간 | 12. 7(금)~12. 11(화), 5일간

장소 | 제4전시장

주최 | 한국누드사진협회 울산지회

■ 전시내용

한국누드사진협회 울산지회 창립전으로, 인간의 내면세계를 스쳐 지나가는 환상적인 인체의 이미지를 인화지 속에 드러내어 봄으로써 시각적인 관심과 리얼한 묘사에 중점을 둔 사진 작품 60점 전시

제19회 울산 교직원 작품전

기간 | 12. 12(수)~12. 16(일), 5일간

장소 | 제1,2,3,4전시장

주최 | 울산광역시교육청

■ 전시내용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직원들의 서양화, 동양화, 서예, 문인화, 공예, 조소, 사진, 시화 등 8개 분야의 작품 200점 전시

울산사진씨클연합회 합동전

기간 | 12. 17(월)~12. 21(금), 5일간

장소 | 제1,2,3,4전시장

주최 | 울산사진씨클연합회

■ 전시내용

울산사진씨클연합회 15개 씨클 400여명 회원들이 한 해 동안 활동한 대표작품들을 선별하여 대표작으로 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회원 상호간의 문화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사진에 대한 저변확대와 불거리를 제공하고자 동아리의 대표 사진 작품 250점 전시

제2회 호랑이 똥 정기전

기간 | 12. 22(토)~12. 26(수), 5일간

장소 | 제1전시장

주최 | 호랑이 똥

■ 전시내용

포스터 모던 미술의 대중적인 인식 확산을 위한 미술 전시로 울산 지역 주민의 정서함양과 현대미술과 지역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한 그림 작품 50점 전시

제2회 박미경 개인전

기간 | 12. 22(토)~12. 26(수), 5일간

장소 | 제2전시장

주최 | 박미경

■ 전시내용

현대를 살아가는 개인의 고뇌와 소외를 심리적으로 해석해 보는 서양화 작품 30점 전시

제2회 홍미자 개인전

기간 | 12. 22(토)~12. 26(수), 5일간

장소 | 제3전시장

주최 | 홍미자

■ 전시내용

지난 2년 동안 다양한 기법을 시도하여 얻어진 작가 개인의 결과물인 서양화 작품 30점 전시

제11회 울산매일 보도사진전

기간 | 12. 22(토)~12. 26(수), 5일간

장소 | 제4전시장

주최 | 울산매일신문사

■ 전시내용

울산매일신문사의 제11회 보도사진전으로, 한 해 동안 울산지역의 각종 사건사고 시사적인 사진을 통해 울산 1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의미를 담은 사진 작품 60점 전시

당신의 **블링블링**한 ART 스타일 완성!



문의회원에게 가입하면 공연정보와 할인혜택이 솔~솔~

회원의 종류

구 분	가입기준	연 회비	수혜인원
일반회원	만 19세 이상	20,000원	2인
청소년회원	만 7세 이상 ~ 만 18세 이하	10,000원	1인
가족회원	한 가족	40,000원	4인
단체회원	기업체 또는 단체(10인 이상)	100,000원 (1인 추가시 10,000원)	가입인원

※ 청소년회원은 회원 가입 시 주민등록상 나이 확인

회원기간 | 가입일로부터 1년간

가입방법

- 인터넷 : 회관 홈페이지(<http://www.ucac.co.kr>)
- 전 화 : 052)226-8274
- 방 문 : 울산시립예술단 사무국, 대공연장 매표소

※ 전화·방문 가입은 평일 9시부터 18시 사이에 가능하며, 홈페이지에도 가입을 하여야 회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비납부 | 회원가입하실 때 납부

- 인터넷 가입 시 신용카드 및 가상계좌로 납부 가능
- 은행납부 : 경남은행 540-07-0183857 / 회원가입비(문화예술회관)
- ※ 은행납부는 지정계좌 입금 후 전화로 확인

회원혜택

-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울산문화예술회관과 함께하는 **Arts Friend**" 무료 우송
- 회관 기획공연 및 시립예술단 공연 시 30% 할인
(일반회원 2매, 청소년회원 1매, 가족회원 4매, 단체회원은 본인에 한함)
- 울산문화예술회관 주최 아트 클래스 등록 시 30% 할인
- 울산문화예술회관 주최 초대공연 시 초대권 우송
- 회원을 위한 음악회 개최
- 대관공연 시 주최 측과 협의하여 5%~30% 할인혜택 부여(일부 대관공연 제외)
- 마일리지 포인트 적립(회원가입비 10%, 회관주최 공연 입장료 5%)
- ★ 마일리지 포인트로 회관 주최 유료공연 입장권 구매 가능
- 이메일 및 SNS로 공연정보 제공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시립예술단 사무국(☎052-226-8274)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문화예술회관과 친구가 되어 주세요!!

- 울산문화예술회관 트위터(@ulsanart)와 페이스북(ID:Ulsanartcenter)에 친구 신청을 하시면 빠른 티켓 오픈 정보와 공연, 전시 소식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울산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www.ucac.or.kr)를 방문하시면 친구 신청이 쉬워집니다.



*Always,
with you*

항상 당신의 가까이에 있습니다.
항상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상 당신을 위해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삶의 소박한 여유
가슴 속에서 퍼져 나오는 감동
울산문화예술회관이 함께 합니다.



울산문화예술회관과 함께하는

Arts Friend

with Ulsan Culture & Arts Center